

금남로에서

정재현



요즘 대한민국은 탐욕(貪慾)의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박연차·장자현 리스트에는 함께나 파시한다는 전·현직 정·재계 인사는 물론 언론계 등 각계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두 리스트를 대한민국 상류층의 섹스 스캔들과 부패 스캔들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두 사건의 본질은 과거의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라는 것이 좀더 솔직한 표현일 듯 싶다.

권력과 돈의 부패 고리

탐욕의 구린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권력과 명예의 상징인 청와대 사람들도 탐욕의 덫에 걸려들었다. 청와대 행정관 두 사람이 방승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받고 나서 2차로 모텔로 가 성매매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불과 며칠 전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전직 수석 비서관이 박연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최고강을 한 것으로 보고도 말이다. 배포가 크다고 해야할지, 명청하다고 해야할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탐욕의 그림자는 지방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전남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2명 가운데 6명이 웃을 벗었고, 3명은 재판 계류중이다. 그리고 3명은 수상 대상에 올라 있다. 절반이 넘는 기초단체장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의혹을 받고 있

탐욕이 판치는 시대

는 것이다. 지방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체장 역시 탐욕의 덫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왜 이처럼 무모하게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들은 모두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다. 남 앞에서 굶질거리지 않을 만큼의 권력과 명예도 있다. 자신들이 일군 돈과 권력만으로도 편히 지낼 수 있다. 그런데도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위해 권력주변을 맴돌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한 톨’을 하기 위해 돈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지 못한다. 돈을 선점한 자는 권력을 사들이고 권력을 장악하면

돈마저 거느리려 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의 칼날이 번득인다. 우리만큼 사정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 YS 정권 때는 ‘사정으로 날이 새고, 사정으로 날이 진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권력과 돈의 부패 사슬은 정권이 바뀌고, 또, 또...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 사람이 나중에도 보면 그 칼날에 자신이 상처투성이가 돼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권력과 돈의 부패구조 속에서 살아가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서 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어떤 사회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패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지금 또다시 이 시기를 놓치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박연차·장자현 리스트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예전처럼 밤새만 풀줄 피우다 덮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이든, 언론사 대표이든 관련된 사람은 실명을 낱말로 밝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수사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대통령 이 공개적으로 보장한 뒤 누구라도 비리

가 밝혀지면 처단해야 한다. 그 사람이 대통령 자신도 친족이라도 예외를 뒀선 결코 안 된다.

‘계영배’의 교훈 새겨야

국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까지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등으로 복귀해 활개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유권자 의식으로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부패사슬을 끊을 수 없다. 내부의 거대한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배신자’라 낙인 찍는 사회인식의 전환 없이는 권력과 돈의 부패 고리는 계속 이어진다. 돈과 권력이 상부상조(?)하는 부패의 악순환을 막는 길은 결국 대통령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해 아무리 엄격한 법과 제도를 갖추어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한낱 휴지에 불과하다.

모든 부패의 근원은 탐욕이다. 최근 세계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금융위기도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던가. ‘탐욕의 시대(the decade of greed)’에 술이 잔의 70% 이상 차면 모두 밀으로 흘러내린다는 계영배(戒盈杯)가 불현듯 생각난다. 조선시대 거상 임삼옥(林尙沃)은 계영배를 늘 옆에 두고 끝없이 속구치는 과욕을 다스리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고 하지 않은가.

〈논설위원〉

시설

‘감동 실사’로 U대회 광주유치 이끌자

광주시가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실사단의 광주방문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오는 6~9일까지 광주를 방문하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FISU)의 실사단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조성 계획 등 U대회 유치도시의 역량을 홍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실사는 U대회 유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FISU 실사단은 체류기간 동안 광주의 도시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점검하며 종합적 개최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오는 5월31일 FISU 총회에서 개최지 결정이 판가를 나눈 만큼 이번 실사가 사실상 U대회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인 셈이다.

2015 U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경쟁도시는 캐나다 에드먼턴과 대만 타이페이 다. 스포츠 인프라나 인지도 면에서 뛰어난 도시들이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없

는 상황이다. 특히 에드먼턴은 광주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다. 이미 1983년에 U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데다 국제교통 요지로서 접근성과 인지도가 뛰어나다.

하지만 광주 역시 ‘준비된 U대회 도시’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2013 U대회 실사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유치 열기는 FISU 실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안겼다. 광주시가 이번 실사에 준비한 카드도 바로 시민들의 열기다. 광주시가 이번 실사단의 실사를 앞두고 시작한 ‘희망 2015 리본달기 운동’에 벌써 75만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우리에선 2012 세계박람회의 여수유치에 성공한 소중한 경험이 있다. 여수엑스포 유치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여수시민들의 열기였다. 여수시와 정부의 지원의지도 컸지만 무엇보다 실사단의 마음을 움직인 건 시민들의 호응이었다. 최고의 도전은 최고의 시민이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 비리 그 끝은 어디인가

지자체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위직 공무원은 10억원대의 사회복합시설을 빼돌리고, 군수 친형은 인·허가와 인사 대가로 수천만원의 뒤통을 찡가는 등 지자체의 비리가 막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자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3억원의 보조금을 챙긴 화순군 D 영농조합법인 운영자를 구속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서류가 조작된 것을 알고 있었다. 공무원들과 업자 사이에 검은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화순군은 최근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겨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군수의 형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입건되기도 했다. 진도군에서도 군수에게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준 업자가 구속됐다. 또 진도군수는 직원 인사과정에서 3천만원과 관내 조선소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민선 4기 전남지역 22개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각종 불법·비리에 연루돼 웃을 벗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쯤이면 지자체라기보다는 ‘비리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 비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 재선거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 업무 차질,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민 간 갈등 심화 등 그 피해는 심각하다.

지자체 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산해야 한다.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제도 및 내부 고발 시스템 도입 등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일꾼을 단체장으로 선출하는 지역민의 의지와 해안이 필요하다.

無等鼓

경기도 양평군 고려대학교 농업연습림에 있는 참나무 한 그루에는 고(故) 김장수 농대학장을 기리는 조그마한 이름표가 붙어 있다. 2004년 세상을 떠난 김 학장이 봉분(封墳) 대신 남긴 일종의 자연장(自然葬)이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장례법을 선호했던 김 학장의 뜻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학장의 참나무 이름표는 외국에 나가 보면 공원이나 도심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분 없이 텅그려나 서있는 묘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에선 아직은 익숙지 못하거나 어색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새로운 장례법이 시행되면서 자연장이 새삼 화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골분을 옹기에 넣거나 나무 또는 화초 밑의 흙과 섞어 매장하는 장례법을 말한다. 김 학장처럼 나무 밑에 묻히면 수목장(樹木葬), 집과 가까운 녹지에 텃밭처럼 꾸미면 ‘텃밭장’, 화단처럼 예쁘게 꾸미면 ‘화단장’ 등 그런 식이다.

봉분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일일 수 있으나, 골분이 흙과 함께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면 자연장처럼 그럴싸한 장례법도 없을 듯하다. 국토면적의 1%에 달하는 묘지면적을 줄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산림보호는 물론 벌조 등 무덤관리에 크게 신경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박수를 칠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60%대에 육박한다. 이를 역산했을 때 매년 13만여 기의 분묘가 새로 설치된다는 얘기다. 이를 제외한 화장자 대부분은 납골당에 안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인구에 비례한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

는 60%대에 육박한다. 이를 역산했을 때 매년 13만여 기의 분묘가 새로 설치된다는 얘기다. 이를 제외한 화장자 대부분은 납골당에 안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인구에 비례한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자연장(自然葬)



기고

조연식



오늘 송정리(松汀里)역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광주송정역’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 1913년 10월 1일 송정리~나주 구간 부분 개통으로 등장한 지 96년 만의 일이다. 100년을 채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숫자적 허상에 불과한 일.

역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편리,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가치가 우선이었을 터. 그래서 빠르면 빠른수록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송정역, 새로운 100년의 시작

신도심으로 급부상한 상무지구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표되는 도심확장과 지하철 개통이라는 환경변화가 96년 된 역이름을 바꾼 드문 사례가 아닐까? 광주송정역. 이제 비로소 KTX 정차역으로서 광주의 관문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이름이 생겼다.

이제는 김대중 컨벤션센터나 광주시청 등을 찾는 외지인들이 가까운 광주송정역을 놔두고 멀리 있는 광주역을 이용하는 불편도, 행사마케팅이나 여행업 관계자들이 광주로 가는 방법을 설명할 때 송정리(里)역을 설명하는 데 애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과 환승 거리가 가장 짧은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빠른 도심

새로운 발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 올해 말, 세계 4번째 고속철도 제작국의 명예를 안겨 준 KTXⅡ가 호남선을 달린다. 자유로운 의자회전, 넓어진 좌석 간격과 여러 편의사양이 늘어난 우리나라의 최고급 고속열차를 가장 먼저 호남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셈이다. 송정리역이 아닌 광주송정역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충분한 이유다.

1913년 이후 전남 서남부 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광주송정역’, 경전선의 종착역, 광주지역 최초의 기차역의 명성 그대로 광주의 새로운 명문으로 떠오르는 ‘광주송정역’의 비상(飛上)은 광주와 호남의 또 다른 발전의 시작이 아닐까? 〈광주송정역장〉

고객 중심의 올바른 식당 먹을거리 필요

요즘 식당에서 먹는 밥들은 하나같이 짜거나 맵거나 달다. 진짜 요리의 깊은 맛을 모방하기 위해 소금이나 설탕, 각종 화학조미료 등을 대량으로 들이붓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당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간편하고 더 달콤한 맛을 찾는 사람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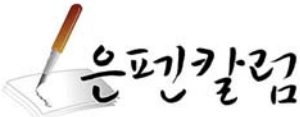
요즘 사람들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한다. TV에서 하는 드라마들도 소재와 내용이 자극적이다. 말 역시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고 거칠게 써서 요새는 막장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막장 드라마, 막장 정치, 막장 인생 등, 서로를 막장이라고 부르면서 상대를 자극하기에 힘쓴다. 또 그들은 진득하게 앉아서 뭘 하길 싫어한다. 조미료를 듬뿍 넣으면 맛있는데 무슨 깊은 맛을 우려내려 하느냐는 것이다.

또 요즘 사람들은 달콤한 맛을 좋아한다.

단맛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단맛만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산나물의 씹을한 맛은 맛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쓴 맛을 싫어해서인가 쓴 소리로 듣기 싫어한다. 또 음식의 쓴 맛뿐 아니라 실패의 쓴 맛도 맛보려 두려워한다. 편안하게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한다. 또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 한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신데렐라가 되는 달콤한 상상들만 즐긴다.

요새 나는 밤에 자꾸 목이 마르다. 낮 동안 하도 짜고 맵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문득 집에서 담근 동치미가 먹고 싶다. 처음에는 아무 맛이 없이 팽팡하다가 나중에 익으면 모든 맛들이 잘 어울러지는 그 맛. 씹었을 때 ‘아삭’ 소리가 나면서 조금은 씹새를한 그 맛이 그리다.

▲이현정·광주시 남구 봉선동



이상옥



70대 후반까지도 파마와 염색을 하하던 장성택 할머니는 82세인 지금은 호호백발이 되셨다. 17세에 선비 가문 외아들에게 시집와서 6·25때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남편과 친정 식구들을 모두 잃고, 90세가 넘게 사신 시부모를 받들면서, 적지 않은 노발을 가꾸며 딸 둘을 키운,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던 할머니다. 전쟁 중 행방불명된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세월, 아들 없는 서러움의 세월이 60년이 넘었다. 그 와중에 효부상을 받으신 일도 있었다. 지금도 시부모 산소관리에 소홀함이 없어 가깝지도

화단 모퉁이에 조심스럽게 앉아 국화꽃 연꽃을 만들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눈보라가 쳐도 한번 시작하면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며칠 전엔 외손자를 불러 고추, 가지, 호박 모종을 심으려고 텃밭 갈이를 시켰다. 아마도 그 일이 끝나면 뒤 또 할 일이 없을까 하며 집안팎을 돌아다니실 것이다.

일에 대한 집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가끔 편찮으시기도 한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제발 시내로 나오시라고 설득하는 딸들에게는 “나는 여기가 편해. 시내는

노인의 집념

많은 산소를 지팡이를 짚으며 둘러보신다. 제사도 꼭 복옥재계하고 성심성의껏 모신다.

아침 일찍부터 이방 저방 깨끗이 쓸고 닦으면서 할머니의 하루는 시작된다. 넓은 마당에는 잡초 한 뿌리 없고 제멋대로 흩어진 돌맹이 한 개가 없으며 말끔히 정돈된 화단에는 온갖 꽃들이 계절마다 탐스럽게 핀다. 가끔 파란 하늘을 보며 목상에 잠길 뿐 하루 종일 쉬시질 않는 것 같다. 이웃사람들이 건강이 염려되어 말리면 “혼자 산다고 집이 지저분하다는 말은 듣기 싫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골 족족 늙어내 줘라 하지 마라. 나는 아직도 힘이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 싶다. 가을에 빨간 고추를 말려 방앗간에 뿜으러 가려면 고추에 먼지가 묻었다고 일일이 깨끗한 행주로 꼼꼼히 닦는 할머니다.

지난 겨울엔 딸이 이곳저곳에서 모아온 모양새가 좀 특이한 돌과 조개껍질을 소쿠리에 담아 안고 아장아장 걸어

답답하다. 하는 일이 없으니 소화가 안 된다” 하시며 일축한다. 60여년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도 않으실 것이다.

어린 두 자매를 남기고 서방님은 옛날에 떠났기에 외손자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이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다. 평생 맺힌 서러움을 외손자와 외증손자를 보며 위로받는지도 모른다. 일에 몰히면서 한 많은 지난 세월을 잊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법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요즈음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 그래서인지 언저리 이상과의 작별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당신이 서둘러 수의를 마련하셨다. 미리 준비해둔 사진도 자주 꺼내보신다. 아마도 장성택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나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 나왔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 것이다.’ 노인네의 애달픈 한평생을 접하며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새삼 생각해 본다. 〈수필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우리 체질에 맞는 약용작물 개발·육성해야

우리 약용작물을 자치단체에서 찾아내고 개발·육성해주면 좋겠다. 즉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단계별로 지역적으로 묶어 특성화보 키워주면 하는 바램이다.

예를 들면 약용작물은 지역별로 나눠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닦아주고 특히 친환경재배와 생산이력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약용작물 효능이나 활용법, 민간요법 등도

책이나 신문 방송에 잘 홍보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활용법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토양과 기후에서 알맞게 자라서 우리 체질에 맞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비자 가정에 들어가 약용작물의 판매수익이 더 늘어날 걸로 본다. ▲김성준·광주시 서구 화성동